China Issue

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패키지 발표

Analyst 여태경 Tk.yeo@hmsec.com

5월 7일,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패키지 3가지 범주, 10개 조치 발표

①준비율을 0.5%p 인하하여 시장에 약 1조 위안의 장기 유동성을 제공

②지급준비금 제도를 정비하고, 자동차 금융회사와 금융리스 회사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현행 5%에서 단계적으로 0%로 인하할 계획

③정책금리를 0.1%p 인하, 공개시장에서 7일물 역레포 운용금리를 기존 1.5%에서 1.4%로 조정함에 따라 대출우대금리(LPR)도 0.1%p 인하될 것

④각종 특별 구조금융상품 금리와 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를 포함한 구조통화정책 상품의 금리를 현행 1.75%에서 1.5%로 0.25%p 인하, 담보 보충 대출(PSL) 이자율도 현재 2.25%에서 2%로 변경됨

⑤개인주택공적자금대출 금리가 0.25%p 인하, 5년 이상 만기의 첫 주택 이자율이 2.85%에서 2.6%로 하락하고 다른 만기 상품들의 이자율도 동시에 조정됨

⑥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재융자 규모를 현행 5천억 위안에서 8천억 위안으로 3천억 위안 증액하며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이구환신의 두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

⑦5천억 위안 규모의 '서비스 소비와 연금 재대출'을 설정해 상업은행들이 서비스 소비와 연금에 대한 신용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

⑧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규모를 3천억 위안 증액하여 재대출 금리 인하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, 은행이 농업, 중소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

⑨자본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8천억 위안으로 두 가지 통화정책 도구를 최적화함. 5천억 위안은 증권, 펀드, 보험사의 호환편의, 3천억 위안은 주식매수 및 재융자확대에 할당

⑩중앙은행은 과학기술혁신채권 매입을 위한 저비용 재대출 자금을 제공하고, 지방정부 및 시장지향적 신용증진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보증과 같은 다변화된 신용증진 조치를 통해 채권의 채무불이행 손실의 일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기업과 주식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저비용 및 장기 과학기술혁신채권금융을 지원함

'24년 9월의 부양책과는 결이 다르다

-연휴 직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통화정책 패키지는 대폭의 지준율과 LPR금리를 인하했던 지난해 9월 24일의 부양책과는 사뭇 결이 다른 상황

-중국 인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준율 0.5%p인하해 시장에 약 1조 위안의 장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, 이번 지준율 인하에서 중국의 주요 정책은행, 공상/농업/중국/건설/교통 등 대형 상업은행 등과 같이 이미 지준율을 5%로 설정한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반쪽짜리 지준율 인하로 평가]

-또한, 통화정책 외에 특정분야를 위한 금융지원에 재정정책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음

-정부의 금리인하 패키지 발표 이후 5월7일 중국 A증시 양대 지수인 상해종합주가지수와 심천성

분지수는 각각 +0.8%, +0.2%상승에 그치며 지난해 9월 24일 증시 흐름과 상이한 모습 전개

연휴 직후 통화정책 패키지 발표 배경과 기대감

-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를 방문하는 기간 중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협상 논의가 예정된만큼 중국 정부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보다 서둘러 트럼프 정부를 자극할 목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 발표를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음

-4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미국의 관세부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만큼 향후 경제상황 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, 농업 및 중소기업, 과학기술혁신, 소비확대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

-특히, 5월 초 노동절 연휴 직후 USD/CNY 시장환율이 7.2초반 수준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형성된 박스권의 하단까지 급락해 본격화된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환율 수준까지 수출에 부정적인만큼 내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정책을 최적의 타이밍에 발표한 것으로 판단

-다만, 이번 지원 정책이 대외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중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관망이 필요한 상황

▶Compliance Note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여태경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